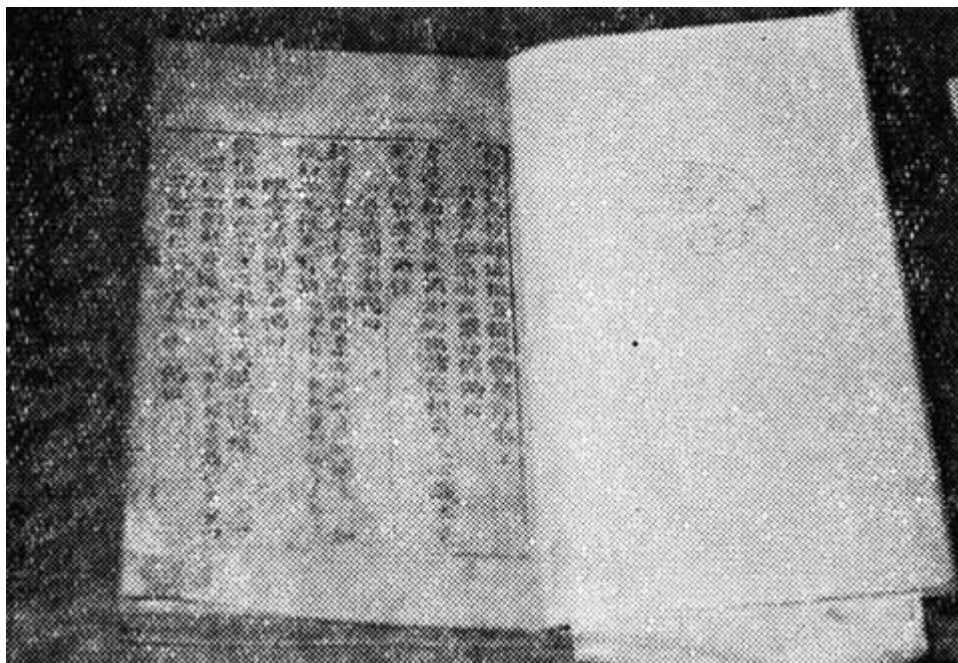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백운화상소록불조직지심체요절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白雲和尚少綠佛祖直指心體要節)

千 惠 鳳

1. 내 용(內 容)

본서(本書)는 고려(高麗) 말기(末期) 선걸(禪傑)인 백운화상(白雲和尚)(법명 경한, 생몰년(法名 景閑, 生歿年 1298~1375))이 75세(歲) 때 비파시불 이하(毗婆尸佛 以下)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까지의 칠불(七佛)을 위시한 역대(歷代)의 여러 조사(祖師)와 고승(高僧)들이 말씀한 법어(法語) 게(偈) 송(頌) 명(銘) 서한중(書翰中)에서 선(禪)의 요체(要體)를 깨닫는데 필요(必要)한 내용(內容)을 간추려 상하(上下) 2권(券)에 수록하고, 권수(券首)에 「백운화상소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 제명(題名)한 것이다. 그 주제(主題)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선종(禪宗)의 오도(悟道)에 관한 명구(名句)에서 따서 붙인 것이다.



권상(卷上) 수엽(首葉)

그 뜻은 수선(修禪)하여 자기(自己)의 심성(心性)을 바르게 볼 때, 그 심성(心性)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선종(禪宗)에 있어서 도(道)를 깨달으면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自己)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책의 역사(歷史)」 전시회(展示會)에

출품된 책에 「직지심경(直指心經)」이라 있는 것은, 「직지심체(直指心體)」에 있어서 「체(體)」를 「경(經)」으로 고쳐서 표지(表紙)에 붙인 제첨(題簽)임을 짐작케 한다.

### 2. 형 태(形 態)

본서(本書)는 상하(上下) 2권(券)1책(冊)의 선장(線裝) 목판본(木板本)이다. 판식(板式)에 있어서 광곽(匡郭)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그 크기는 17.2×13.5cm(본문(本文)의 수엽(首葉))이며, 11행(行)20자(字), 유계(有界), 선흑구(線黑口), 상흑어미(上黑漁尾)이다. 책의 상하(上下) 단면(斷面)을 후세(後世)에 절단(截斷)하여 원형(原形)이 상실(喪失)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23.5×15.8cm의 소형책자(小型冊字)이다. 권상(券上)의 수엽(首葉)에는 「위창장서(葦滄藏書)」의 실인(失印)이 찍혀있다. 본서 고오세창선생(故吳世昌先生)의 수택본(手澤本)이었던 것이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에 들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장(紙張)은 저지(楮紙)이며 표의(表衣)는 황색후지(黃色厚紙)이다.

### 3. 간 행(刊 行)

본서(本書)에는 「세계임자년(歲在壬子年)(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21,1372) 구월(九月) 성불산거로비구경한백운수서 시년칠월유오의(成佛山居老比丘景閑白雲手書 時年七月有五矣)에 이어,

「선광팔년무오(宣光八年戊午) (고려우왕(高麗禑王)4, 1378) 육월일(六月日)

서원(書員) □중(□庵) 선화(禪和) 천당(天旦)

액수(刻手) 종□(宗□) □여(岳如) 신명(信明)

모연(募緣) 법□(法々) 자명(自明) 혜전(惠全)

조연문인(助緣門人)

비구니(比丘尼) 묘덕(妙德) 요성(妙性)

영조(靈照) 성공(性空)

영평군부인윤 씨((鈴平郡夫人尹 氏)

북원군부인원 씨(北原郡夫人元 氏)

구성군부인이 씨(駒城郡夫人李 氏)

정순대부판통례문사금 계생(正順大夫判通禮門事金 繼生)

유판도(留板刀)<천(川)> 영취암사(寧鷲巖寺)」

의 간기(刊記)가 있다. 곧 백운화상(白雲和尚)이 75세(歲)되던 1372년 임자(壬子)에 초록수서(抄錄手書)한 고본(稿本)을, 6년후(年後)인 1378년무오(年戊午) 6월에 지금의 여주(驪州) 북(北)쪽 25리 지점(地點)인 천녕현(川寧縣) 혜목산(慧目山) 소재(所在)의 취암사(鷲巖寺)에서 개판(開板)한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같은 해인 1378년(年) 7월(月) 말하자면 본서(本書)보다 바로 1개월후(個月後)에, 동일(同一)한 사찰(寺刹)(취암사(鷲巖寺))에서 동일(同一)한 각수(刻手)(종□ □여 신명(宗□ 岳如 信明)와 모연책임자(募緣責任者)(法々)에 의하여, 그리고 조연문인중(助緣門人中) 태반의 동일인물(同一人物)(비구니(比丘尼) 묘덕(妙德) 북원군부인원씨(北原郡夫人元氏) 구성군부인이씨(駒城郡夫人李氏) 정순대부판통례문사 김계생(正順大夫判通禮門事 金繼生)에 의한 희사(喜捨)로 간행(刊行)된 동(同) 화상(和尚)의 고려본(高麗本)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과 비교(比較)하여 보니,

- 1) 간행지(刊行地)에 있어서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은 「천녕(川寧)」으로 되어 있는데, 본서(本書)는 「도령(刀寧)」으로 되어 있으며,

2) 판각(判刻)에 있어서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은 자획(字劃)에 완결(剋缺)이 없고 판면(版面)이 정교(精巧)한데 반(反)하여, 본서(本書)는 군데군데 자획(字劃)의 일부(一部)에 결실(缺失)이 있음은 물론 목륜(木輪)도 다소(多少)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發見)되고, 그 중(中)에서도 권하(券下)의 제(第)34장(張)은 특히 판면(版面)의 마손(磨損)이 좀 심(甚)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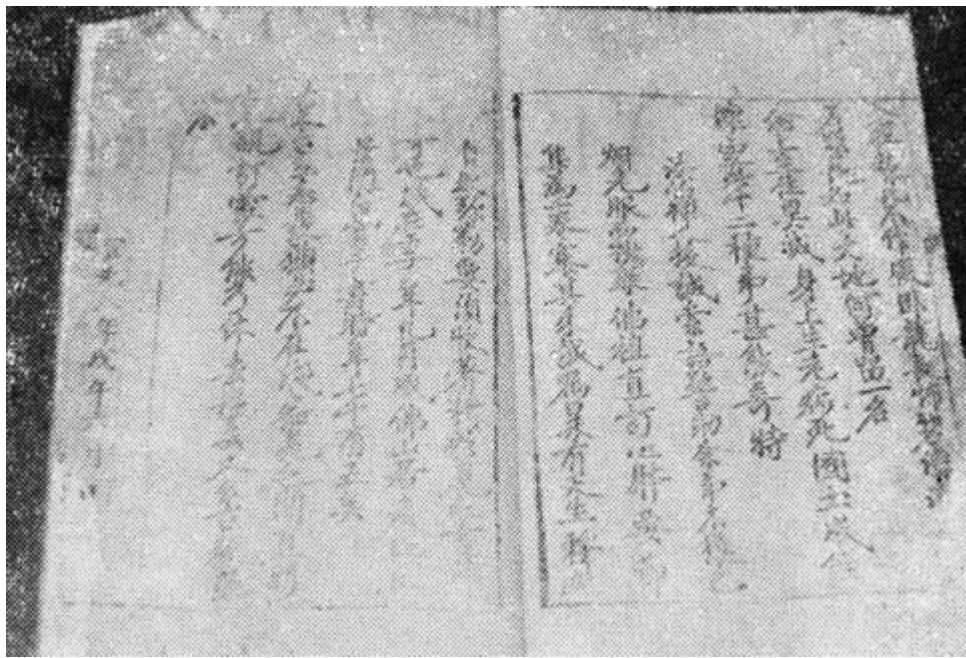
3)지질(紙質)에 있어서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은 여말본(麗末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장(紙張)으로서, 저씨(楮氏)에 고정(薰精)등이 섞인 것이 많이 혼입(混入)되어 있고 퇴색도(槌色度)가 사뭇 짙은데 반(反)하여, 본서(本書)는 담황색(淡黃色)으로 퇴색(槌色)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中)에는 비교적(比較的) 흰 색바탕의 저씨(楮氏)도 섞여 있어 고박도(古樸度)가 전자(前者)에 미치지 못하며,

4) 조연문인(助緣門人)에 있어서 본서(本書)는 전조연자중(全助緣者中) 「영조(靈照) 성공(性空) 영평군부인윤씨(鈴平郡夫人尹氏)」의 2행(行)이 전후행(前後行)의 문자(文字)보다 유달리 흑색(黑色)이 짙고, 글자도 큰 감(感)이 드며, 도각(刀刻)에도 차이(差異)가 있다. 아마도 재쇄(再刷)할 때 조연(助緣)한 이들이 추각(追刻)이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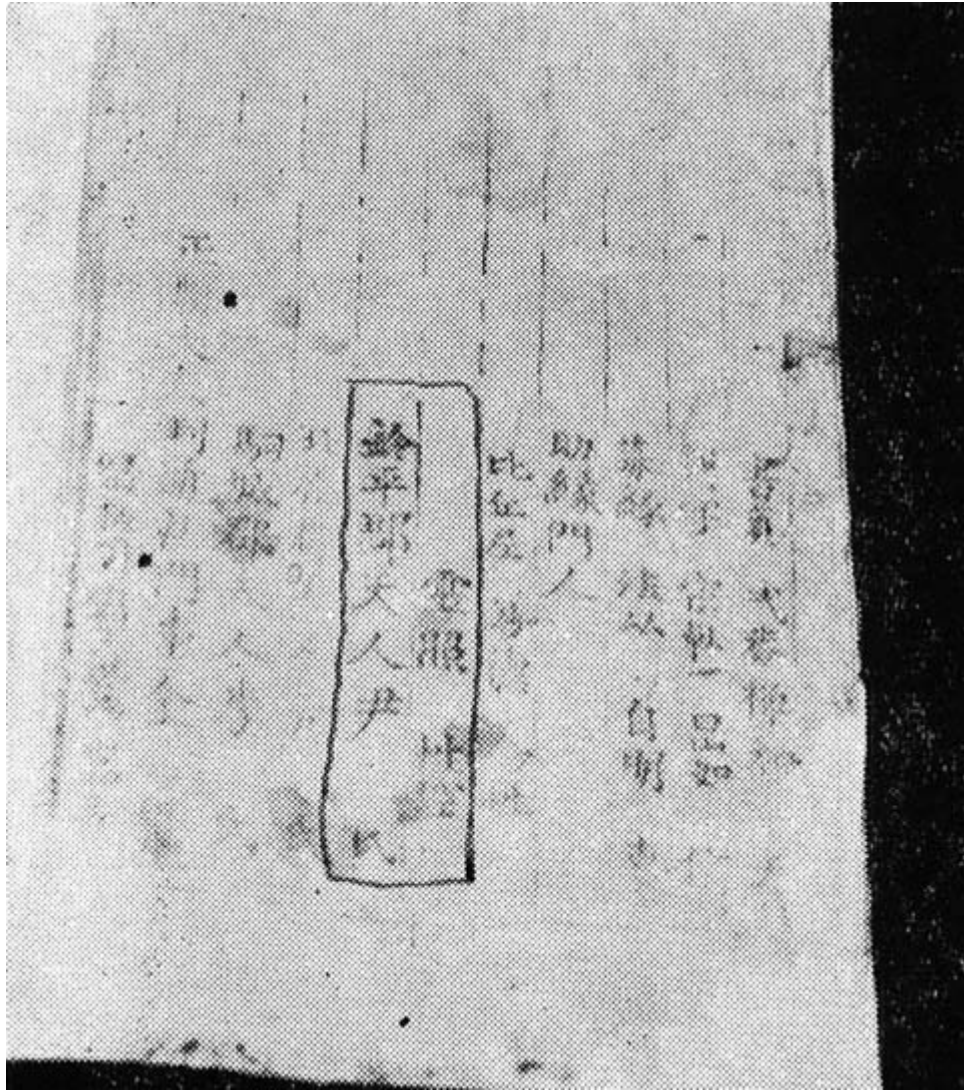
이상(以上)의 명항(名項)을 토대(土台)로 본서(本書)의 간행사항(刊行事項)에 관하여 판정(判定)을 내려보면,

1) 본서(本書)의 간행지(刊行地)인 「도영(刀寧)」은 오각(誤刻)이고, 「천영(川寧)」이 옳으며 여주(麗州)의 북(北)쪽에 위치(位置)한 지명(地名)이다.

2) 본서(本書)의 개판(開板)은 간기(刊記)대로 고려(高麗) 우왕(禡王)4년(1378) 6월에 이루어진 것이나, 인출(印出)만은 그뒤 일부(一部)의 조연자(助緣者)들의 희손(喜損)에 의해 이루어진 바 중쇄(重刷)된 후인본(後印本)이다.



<백운수서기(白雲手書記)>



<간기(刊記)>

#### 4. 빠리본(本)과의 비교(比較)

프랑스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서 전시중(展示中)에 있는 「백운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白雲尙抄緣佛祖直指心體要節)」은 그 권하(券下)에 「선광칠년정화기(宣光七年丁和己)(고려(高麗) 우왕(禩王)3, 1377) 칠월(七月) 일(日) 청주목외(淸州牧外) 흥덕사(興德寺) 주자인시(鑄字印施)」 간기(刊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朝鮮書誌)」(Bibliographie Coréenne)의 부록(附錄)(1901년간(年刊))에도 1377년경(年頃) 청주지방(淸州地方)의 외곽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金屬活字)를 사용(使用)하여 인쇄(印刷)한 것이라 전제(前提)하고, 만일(萬一) 그 증거(證據)가 금속활자(金屬活字)라는 것이 틀림없다면 태종(太宗) 때의 계미자(癸未字)보다 26년(年)이나 앞서 사용(使用)된 것이니 이는 금속활자(金屬活字)의 발명(發明)으로서 영광(榮光)스러운 일이라 기술(記述)되어있다.

그러나 실물(實物)을 보지 못하여 그간 학계(學界)에서는 긍정(肯定) 또는 부정적(否定的)인 양면(兩面)에서 엇갈린 추측(推測)을 임의(任意)로 해왔던 것이나 다행히도 지난 6月 23日에 간기(刊記)를 포함(包含)한 지엽

(紙葉) 2면(面)의 축소서영(縮小書影) 1매(枚)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우송(郵送)되어 왔다. 그 서영(書影)에 의하여 주요(主要)한 형태(形態)의 특징(特徵)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광곽(匡郭)의 사주(四柱)가 고착(固着)된 단변(單邊)이고, 계선(界線)이 광곽(匡郭)의 상하변(上下邊)에 고착(固着)되어 있다.

2) 반엽(半葉)의 행자수(行字數)는 11행(行) 18~20자(字)로서 매년(每年)의 자수(字數)가 일정(一定)하지 않으며, 따라서 글자의 횡오(橫伍)가 맞지 않는다.

3) 명(名) 행렬(行列)의 배자(配字)가 빼들빼들하고, 그 중(中)에는 한 글자가 아예 비스듬하게 직자(植字)된 것도 나타나고 있다.

4) 판면(板面)의 농박도(濃薄度)가 심(甚)한 차이(差異)를 보인다.

5) 도각(刀刻)의 흔적(痕迹)이 보이지 않으며, 자획(字劃) 하나 하나의 태세(太細)와 자체가 균정(均整)하다.

6) 자체(字體)는 남송본(南宋本)의 그것을 자본(字本)으로 한 것이다.

7) 판심(版心)에 흑구(黑口)와 어미(漁尾)가 없고 다만 「직(直)」과 장차(張次)만이 표시(表示)되어 있다.

이들 제특징(諸特徵)을 토대로 주자본(鑄字本)을 감정(鑑定)할 때 흑자(或者)는 1)과 2)의 조건(條件)을 들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자(鑄字)의 조판술(組板術)이 유치(幼稚)했던 초기(初期)에 있어서 으레 볼 수 있는례(例)이며, 조선(朝鮮) 태종(太宗) 3年(1043)에 주조(鑄造)한 계미자(癸未字)의 간본(刊本)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징(特徵)을 감별(鑑別)할 수 있다. 그것은 사주(四周)를 고착(固着)시킨 쇠틀안에 계선(界線)이 그 상하변(上下邊)에 고착시키고, 그 구획(區劃)된 행간(行間)에 크기가 정확(正確)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르는 활자의 몸통까지 깎아 밀착배자(密着排字)하여 짝 들어 맞도록 했던 것이다. 계미자판(癸未字板)의 판술(組板術)이 그러하거늘 하물며 고려(高麗)의 주자판(鑄字板)에 있어서는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것보다는 지엽(紙葉)이 불과(不過) 2면(面)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同一)한 문자(文字)에 대한 같은 자체(字體)의 빈도조사(頻度調査)가 불가능(不可能)하고, 목자(木字)의 보충(補充)으로 여겨지는 글자도 다소(多少)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 이 축소(縮小)된 사진판으로서 그 가름을 정확(正確)하게 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실물(實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미해(未解)의 문제(問題)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위의 제특징(諸特徵) 3) 4) 및 5)의 조건(條件)만으로서도 빠리본(本)이 주자본(鑄字本)인 것만은 능히 가름할 수 있니 다행(多幸)한 일이다.

위에서 빠리본(本)의 대강을 서영(書影)에 의해 언급(言及)하였거니와, 이를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 소장(所藏)의 목판본(木板本)과 비교(比較)하여 보면 간기(刊記) 행판(行款) 판식(板式) 자체(字體)등이 전혀 다르고 또한 문장내용(文章內容)에 있어서도 부분적(部分的)으로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양자(兩者)는 간행(刊行)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關聯)이 없음을 확증(確證)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국립중앙도서관본(國立中央圖書館本)은 바로 1년전(年前)에 간행(刊行)된 빠리본(本)을 그대로 복각(覆刻)한 것이 아니라, 서사원(書寫員)들이 독자적(獨自的)으로 판하본(板下本)을 정서(淨書)하여 개판(開板)한 이판본(異板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본(國立中央圖書館本)은 프랑스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 소장(所藏)의 주자본(鑄字本) 연구(研究)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關聯)이 없으며, 다만 그 책의 내용(內容)을 상고하는데 도움이 되고, 본(本) 제명(題名)이 붙여진 고려개판(考慮開板)의 후인본(後印本)으로서 국내(國內)에 전존(傳存)되고 있는 것중 이것이 유일본(唯一本)인 점(點)에서 그 서지적(書誌的) 가치(價値)가 희귀(稀貴)하게 평가(評價)될 뿐이다.



〈本文의 一部 (木板本)〉

<본문(本文)의 일부(一部) (목판본(木版本))>



<프랑스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 소장(所藏) 주인본(鑄印本)>